

2020 대입 수시 대비 제시문 면접 지도 자료

인 문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0 대입 수시 대비
제시문 면접 지도 자료
(인문)

일러두기 & 수록내용

- 이 자료는 2020대입 수시 전형에서 제시문을 활용하는 면접을 학교에서 지도하고자하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 교재는 제시문 면접을 실시한 서울대학교(일반전형), 고려대학교(학교추천 I II,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에서 치러진 제시문 면접 기출고사 문제의 해설 자료와 연습용 모의문제를 실었습니다.
- 본 자료는 업무포털(<http://neis.pen.go.kr>) 접속화면 오른쪽 배너의 [교무 업무지원] - [과별 자료실] - [중등교육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ONTENTS

1. 서울대학교 / 1
2. 고려대학교 / 13
3. 연세대학교 / 29
4. 서울교육대학교 / 64
5. 진주교육대학교 / 75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



I

전형 개요

- 전형명 : 일반전형

- 평가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음. (모집단위별 평가 분야나 과목은 202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참조)

사정 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단계별	1단계	100(2배수)	
	2단계	50	50

- 평가 방법

- ①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됨
- ②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함
- ③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준비 방법

-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 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 소양을 평가하고자 함.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함. 학습 과정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함.
- ② 다소 깊이 있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 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됨.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자신의 우수한 학업 소양을 드러낼 수 있음.



II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

1. 인문학(오전)

1-1. 문제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간호사 해나(Hana)가 환자에게 키플링*의 소설을 낭독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알마시(Almasi)가 말을 건넨다. “해나, 천천히 읽어요. 키플링은 천천히 읽어야 해요. 쉼표가 찍힌 곳을 주의 깊게 보면 자연스레 끊어 읽을 곳을 알게 돼요. 키플링은 펜과 잉크를 사용했던 작가죠. 한 페이지를 쓰다가도 여러 번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창문 밖을 내다 보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지. 혼자 있을 때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러듯이. 해나의 눈은 너무 빨라요. 요즘 사람답게 말이지. 키플링이 펜을 움직이던 속도를 생각해요.”

*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 : 『정글북』 등으로 알려진 영국 소설가

(나) 죽은 사람은 싫어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무덤 속에서 돌아눕는다는 속담대로라면, 어젯밤 올드빅*에서 공연된 『폭풍』(The Tempest)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분명 무덤 속에서 또 돌아누웠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셰익스피어를 아끼는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비극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비극들은 보다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살인과 죽음이 만연한 이유로 셰익스피어가 쓴 말 자체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데 꽤나 성공했다. 하지만 희극의 경우는 아예 가망이 없다. 관객 옆에 아홉은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는 알아도 희극의 대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배우가 농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농담이 농담인 줄도 모른다. 그래서 배우들은 대사를 최고 속도로 뱉어내고 그 빈자리를 슬랩스틱**으로 최대한 채워 넣으려 한다. 관객들이 웃는다면 그건 셰익스피어의 글 때문이 아니라 광대짓 때문이다.

* 올드빅(Old Vic): 19세기에 세워진 런던의 극장

** 슬랩스틱(slapstick): 우스꽝스러운 몸동작을 사용한 익살

[문제 1] 예술작품 또는 고전을 대하는 데 있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가)와 (나) 각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하시오.

[문제 2] (나)의 저자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무대에 올리려는 연극 연출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지 말하고, 자신의 독서 또는 예술 감상 경험을 토대로 이 조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오.

1-2. 대학 측 출제의도

- 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통해 공통된 주제를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독해를 통해 유추된 논리를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함

1-3. 문제 해설

[개념] 고전 및 예술 작품의 감상법, 창작자의 의도, 문학과 공연, 문학과 연극, 다양한 매체, 창의적 수용, 비판적 수용

[문제1, 2]

- 두 제시문 모두 고전을 현재적 시각 위주로 감상, 수용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포함하는 바, 글 읽기와 공연 연출이라는 상이한 맥락으로부터 이런 공통된 요소를 추상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제시문 (나)는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거스른 수용 사례에 대한 비판을 주로 제시하는 바, 이를 대안의 제시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고전의 현재적 수용 또는 예술작품 수용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일관된 논리로 가치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답변이 열린 문제임. 도발적인 답변도 적절한 논리가 동원된다면 환영할 만함. 자신의 의견에서 배제된 것과 이에 내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학생 개인의 경험을 사례로 들 때 반드시 문학에 국한될 필요는 없음.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책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만화로 된 고전류의 예를 들도록 할 수도 있음
- 수험생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인식적, 미적 가치를 탐색하며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를 내면화해 본 경험을 제시문과 연관지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보임
- 누구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서 지원자들이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지원자의 독서나 예술 감상 경험에 따라 대답의 수준에서 차이가 예상됨

1-4. 예상 답변

[문제 1] (가)와 (나)는 모두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원작에 충실하게 작품을 감상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의 알마시는 해나가 키플링의 창작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작품을 낭독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작가의 창작 상황을 고려하며 천천히 감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키플링이 작품을 쓰던 상황의 속도, 펜과 잉크를 사용하여 작품을 쓰던 시대의 속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 이는 작품이 탄생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읽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저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작가가 대사에 담은 의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우스꽝스러운 몸동작으로만 연출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 웃음과 슬픔이 아니라 광대의 몸짓에 따라 반응하는 관객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며, 이는 원작자인 셰익스피어가 무덤에서 돌아누울 정도로 싫어할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2] (나)의 저자는 연극 연출가에게 “셰익스피어가 대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연출하고자 노력하시오.”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 ①)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소설을 읽고 이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들이 노래와 몸짓으로 대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함으로써 소설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이중성, 선과 악의 공존에 관한 주제 의식을 더욱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연출은 수용자들이 작품의 의미를 깊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조하는 입장 ②) 찬성하는 바입니다. 셰익스피어 대사 특유의 시적 함축성과 리듬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의 ‘명대사’를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무대에서 보는 것보다 읽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해 낸 대사의 아름다운 표현, 재치 넘치는 유머, 시적 분위기를 감상하고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극 공연으로 만들 때 연출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사’를 관객에게 온전하게 전달시키는 것임을 조언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입장 ①) 반대하는 바입니다.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방법만이 작품 감상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원작자의 의도와 다른 연출자의 해석이 개입된 작품 연출이 가능합니다. 문학 시간에 고전 소설 〈전우치전〉을 배우고 영화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현대로 옮겨온 연출을 통해 전우치라는 인물의 특성을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을 재해석한 연출을 통해 수용자들은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 ②) 반대하는 바입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는 독자(또는 관객)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읽고 모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결말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모둠원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고, 여러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폭넓게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회과학(오후)

2-1. 문제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좋은 집터란 다음과 같다. 무릇 사람은 양기(陽氣)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양기를 주는 것은 하늘의 햇볕이다. 하늘이 적게 보이는 곳에서는 양기가 적어서 결단코 살 수 없다. 그래서 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집터는 더욱 아름답다. 햇볕이 잘 들고, 달빛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며,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를 비롯한 기후가 충분히 알맞은 곳이면 반드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질병도 적다.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산줄기가 나약하고 둔하여 생색이 나지 않거나 부서지고 기울어져서 길(吉)한 기운이 적은 형상이다. 땅에 생색이 나지 않고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

(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오랫동안 축산업이나 정착 농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기후가 매우 건조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대단히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중 기후가 불규칙하여 심한 가뭄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기도한다. 이러한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정착 농업을 대신하여 ‘부지깽이 농법’이라 불리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땅에 불을 지르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불이 나면 동물들이 도망쳐 나오므로 즉시 잡아먹을수 있고, 수풀로 우거졌던 곳이 불에 타서 시원하게 뚫린 초원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해진다. 불탄 초목의 재는 원주민들이 먹는 고사리 뿌리뿐 아니라 캥거루가 먹는 풀의 성장을 촉진시켜 그 초원을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사냥감인 캥거루의 이상적인 서식지로 만들었다.

[문제 1] (가)의 ‘좋은 집터’에 대한 서술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와 (나)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자연환경에 대한 (나)와 같은 적응 방식과 유사한 사례 두 가지를 들고, 이러한 적응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2-2. 출제 의도

-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및 비교 분석력을 평가함
- 개념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응용력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력을 평가함

2-3. 문항해설

[개념]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 환경가능론, 환경결정론, 인간 중심적 자연관,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

- (가)의 주요 논지는 좋은 집터가 좋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나 인간의 수동적 결정을 강조하는 ‘환경결정론적(environmental determinism)’ 관점을 함축함
- (나)는 열악한 오스트레일리아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적응 방식으로 자연환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변경, 극복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가능론(possibilism)’ 또는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 관점에 해당함
-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관점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음
- 환경가능론적 관점에서 주어진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해당하는 현실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효과를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음
-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접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나, 환경가능론적 관점을 적용한 실제 사례와 그 효과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중요함

2-4 예상 답변

[문제 1]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는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곧 좋은 집터이고, 좋은 집터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고 서술하여 환경이 인간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인간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척박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인간에게 자연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환경가능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 2] (나)와 유사한 관점에서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는 갯벌을 매립하여 간척지를 조성하는 간척 사업과 홍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다목적 댐의 건설, 건조기후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관개 시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로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들 수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급속도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환경가능론적 인식은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는 지금 현재, 전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한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상호관계를 생각해보고,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예상 모의)

1. 인문학

1-1. 문제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꺼리며 무리의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리거나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무리를 짓는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끼리 만나고 있을까봐 걱정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 볼까 봐 차라리 굶기를 택하고, 결혼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필요가 없다. 쇼핑할 때 혼자라면 타인의 취향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니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다.

삶은 어차피 홀수이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함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충분한 자유를 흠뻑 느낄 수 있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나)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또는 타인들이 이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은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이 개인의 소속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또는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조합 또는 저 직업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의 주어진 사실과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것들은 나의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종종 전체적으로 나의 책무와 의무를 정의한다. 개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만약 그들이 이 공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방인이거나 추방자가 된다.



[문제 1]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가) 또는 (나)의 입장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되, 자신의 경험에서 사례를 들어 말하시오.

1-2. 출제 의도

- 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통해 각각의 주제를 비교 대조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독해를 통해 유추된 논리를 경험과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함.

1-3. 문항 해설

- (가)는 미래엔 ‘독서’ II 독서의 방법 ‘삶은 홀수다’에서 (나)는 ‘EBS 윤리와 사상’교재에 실린 매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가)는 타인들과 어울리지 않고도 충분히 삶을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로서, 최근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글이다.
- (나)의 매킨타이어 덕 윤리 사상은 공동체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그가 설정한 인간의 자아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자아는 자신이 하는 역할 안에서 또는 역할을 통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역할은 개인과 공동체를 결합시킨다. 자아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세계와 마주하며, 그러한 것들과 분리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더 중시하며 도덕적 행위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요구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 두 제시문은 ‘홀로됨’과 ‘공동체주의’라는 다른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글이다. [문제 1]은 각 제시문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점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가)는 혼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입장이고, (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과 사회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 자아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에서 대조점을 찾을 수 있다. [문제 2]에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 때 학생의 자기소개서나 읽었던 책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꼭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다.

1-4. 예상 답변

[문제 1] 두 글은 사회생활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조적인 글입니다. (가)는 ‘나홀로 문화’의 장점에 대해 열거하며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만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는 관계를 벗어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개인보다는 사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1. 각 입장의 장점 또는 단점은 무엇인가?
2. 현대사회에서 (가)와 같은 입장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나)에서 ‘공동체 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매킨타이어의 사상을 간략히 설명해보시오.

[문제 2] 저는 두 시각을 모두 긍정합니다. (나)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은 사회제도나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서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복지, 교육제도 등 공동체의 기반 없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한 가족과 학교, 여타 제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빼고는 저 자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려면 혼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인 식당 증가, 배달업계의 성장, 혼밥, 혼공 등의 신조어 등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고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단체 활동에 익숙해지다 보니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두려워 항상 친구와 함께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춰주다 보니 저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즐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무언가를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립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컨대 개인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완성되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서로 자유롭게 드러내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1. (가) 또는 (나) 한 입장만 옹호했을 경우, 지원자가 옹호했던 입장을 나머지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말해 보시오.
2. 지원자가 든 사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회학

2-1. 문제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베짚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권리와 책임 하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와 가족의 생계는 국가나 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립심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

(나) 수탉지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 앞에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생활이란 비참하고 고생스럽고 짧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떠한 동물도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행복이나 여가란 말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동물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불행과 예속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지 자연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갖추고 살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 전부를 인간들이 빼앗아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산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물의 왕인 것입니다. 암탉 여러분, 당신들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으며 그중에서 병아리로 깸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존스와 그의 일당들에게 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시장에 팔려 나간 것입니다.”

[문제 1]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와 (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시오.

[문제 2] 최저임금제 시행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할 때 (가)와 (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무슨 주장을 펼칠지 예상하여 말하시오.

2-2. 출제 의도

- 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통해 불평등을 보는 시각의 상이함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독해를 통해 유추된 논리를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함

2-3.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반영한 자료로, 기여도의 원칙을 통해 기능론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그 사회의 합리적 자원 배분의 결과로 파악하여,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여도의 원칙에 따르면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 또한 불평등 해결의 주체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개인이 최선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사회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장치로 파악한다.
- 제시문 (나)는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의 일부이다. 이 글은 동물 농장의 돼지가 다른 동물들에게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사회를 대립하는 두 집단의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론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결과 사회 불평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 불평등은 집단 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사회적 희소 자원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권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차등 분배되며, 그것은 개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거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론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 기인한다.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피지배 집단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한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회 불평등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4. 예상 답변

[문제 1] (가)는 기여도의 원칙을 통해 사회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기여도의 원칙에 따르면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는 것이 정의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모든 문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불평등 해결의 주체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에서 수탉지 메이저 영감은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만 하는 인간의 모습을 역설하고 있다. (나)에 등장하는 돼지의 연설에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설정하고, 인간의 지배와 착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갈등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물이 불평등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 질문)**

- 1-1. (가)와 (나)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가)와 (나)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문제 2]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가)는 기능론에 입각하여 최저 임금제를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의 입장에 선 사람은 불평등은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임금 격차를 강제로 줄이는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넘는 최저임금 지급 시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노동자들도 오히려 고용축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 경제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가 있어야 높은 임금을 위해 효율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갈등주의적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를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갈등론에 의거하여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생산성 향상을 약화시켜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 역량에 의거한 것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낮은 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계발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I



I

전형 개요

- 전형 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면접평가
단계별	1단계	100%(3배수 내외)	
	2단계	50%	50%

- 면접 고사 진행 방법

공간	활동	세부내용
면접 준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준비 • 제시문, 응답지, 메모지 배부 • 토론면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지는 토론 면접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글씨를 크게 작성
토론 면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1분 30초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권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총 2회 주도 • 주도권자가 대상자를 지목하여 질문 • 주도권 부여 시간은 개인별 3분씩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최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안 정리 2분간 • 개인별 1분 30초씩 최종 의견 발표



II

학교추천1 면접 문제

1. 면접 문제

안암 고등학교는 공감 능력, 이타심,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 도전정신,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개척 정신을 갖춘 인재, 논리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이다.

이러한 안암고등학교에서는 1년 간의 학교생활태도를 바탕으로 학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에게 안암학생상을 수여한다. 지난 1년 간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추천 심의에 오른 다섯 명의 학교생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학교활동		특이사항
	출결사항	주요교과 내신 성적 변화	
A	무단지각 1회	3등급→1등급	①전교 학생회 부회장 활동 우수 ②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참가 우수상
B	병결석 2회	2등급 유지	①1년간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②체험학습 보고서 우수상
C	1년 개근	3등급 유지	①학급 반장 활동 우수 ②모듬활동 우수상
D	병조퇴 6회	1등급	①인문학탐구보고서 대회 1위 수상 ②과학동아리장 활동 우수
E	병지각 2회	2등급 유지	①교과우수상(일본어, 체육, 미술) ②봉사동아리장 활동 우수

[문제 1] A~E 학생 중 안암학생상을 수여할 학생 1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발표하시오.

[문제 2] 안암학생상을 수여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학생 평가 자료로 어떤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지 설명하시오.

2. 예상 답변

[문제 1]

[출제의도] 지원학생들의 학교활동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적합한 활동을 하였는지 점검해 보는 문항이다.

☞ A학생을 안암학생상 수여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교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어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심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하여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 그리고 성장 욕구를 갖춘 인재라는 측면에서 안암학생상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결과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지만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무단지각 1회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횟수가 단 1번이었고 이후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생활 태도를 계속 다듬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안암학생상 수여 후보로 추천합니다.

[약점] A학생은 무단지각 2회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른 활동이 우수하다곤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문제점(기본 생활습관을 보여 주는 지각 면에서 1차례도 아닌 2차례의 무단지각이 있기에 생활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독 두드러지기 때문에 안암학생상 수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B학생을 수여할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년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100시간 이상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에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과 더불어 꾸준히 성취해 나가는 끈기와 성실성이 아주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여 학업에도 소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우수상을 받는 등의 교내대회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팔방미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안암의 인재상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B학생의 활동은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 개척 정신, 그리고 논리력 등 다양한 안암인재상에 적합한 모습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석이 2회 있었지만, 이는 질병으로 인한 피치 못한 사정이었기에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다는 점엔 조금의 이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B학생은 전체적 활동은 골고루 우수한 편이나 안암고등학교 인재상 중 다른 학생들보다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리더십의 관점을 어떤 항목과 연계하여 토론에 참여할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또한 병결석 2회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 C학생을 안암학생상 수여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학교 활동을 보면 1년 개근을 한 유일한 학생으로 학교생활에 꾸준히 참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인재상 중 사회적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급 반장 활동도 우수하고, 모둠활동 우수상을 받는 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협동심을 갖춘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이 3등급이라 부족하다 평가할 수 있으나 오히려 성적 또한 3등급에서 꾸준히 유지했다는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암학생상의 학교 인재상에 C학생이 가장 적합하여 안암학생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약점] C학생은 A~E 학생들 중 주요교과 성적이 제일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교과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리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라는 관점에 대관 평가요소를 어떤 관점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D학생을 수여할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한 교과 내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교내 대회나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는 점에서 도전 정신과 성장 욕구가 잘 나타나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1등급이라는 성적은 도달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 없이 유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과학동아리장 활동도 우수히 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학업 능력 외의 리더십과 협동심, 책임감도 뛰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문학탐구보고서 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는데, 과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문학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다방면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D학생이야말로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 개척 정신을 갖춘 인재, 논리력 및 분석력 등을 지닌 인재라는 안암고등학교의 인재상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병조퇴가 잦았지만, 건강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출결사항으로 성실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D학생은 병조퇴가 6회로 출결사항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 학교생활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동아리장 활동 외에는 다른 요소에서 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항목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토론에 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E학생을 안암학생상 수여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성적 면에서 꾸준히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교과는 아니지만 일본어, 체육, 미술 등의 교과에서 교과우수상을 받는 등 전체적인 성적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우수상이 예체능교과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체능 교과도 아주 열심히 학습하는 성장 욕구가 있는 학생이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만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봉사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동아리장을 맡아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을 정도의 학생입니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E학생의 이타심, 공감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나 동아리장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협동심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E학생이 안암학생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E학생의 경우 교과 성적은 2등급이나 교과우수상을 받은 교과가 일본어, 체육, 미술과 같은 예체능 교과이다. 이러한 학생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의 교과 등급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도전정신,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개척 정신을 갖춘 인재’라는 평가척도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토론에 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 2]

[출제의도] 제시된 활동 외에 지원학생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으며, 고려대학교의 인재상 중 A~E학생들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시답안은 학생지도에 참고로 제시하였을 뿐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 동료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결이나 성적, 활동이라는 객관적인 요소 외를 파악하려면 후보자들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협동심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눈보다 학생의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들끼리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안암인재상이라는 특성상 학교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도 고려된다면 평가의 타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지도 방안

- [문항 1]의 예시답안은 일부학생의 사례를 제시한 경우이며, A~E의 모든 학생이 안암학생상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각자의 생각에 따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항 2]의 예시답안은 학생지도에 참고로 제시하였을 뿐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 이 면접은 면접 방식을 잘 익혀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II



I

전형 개요

- 전형 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서류	면접평가
단계별	1단계	100%(5배수 내외)	
	2단계	50%	50%

II

학교추천II 전형 면접 문제

1. 면접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리주의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주창한 것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올바르고 선하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은 개인 행복 총합의 최대화다. 그러므로 ‘개인의 집단’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공공’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과 같은 뜻이며, “모든 개인의 행복(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공의 행복이란 없다. 따라서 집단이 그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과는 다른 어떠한 별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한 행동으로 초래될 개인의 불행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집단의 행복보다 크다면, 이익을 얻는 쪽이 한 가족이건 도시이건 국가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합이다’라는 정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 정의는 ‘집단은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나) 분리 평등 정책(Separate but equal)은 법적 원칙으로써,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등장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학교와 공공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주거 등등에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비슷하다면 인종에 따라 사용 구역을 제한하고 분리해도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1896년 연방 대법원의 플레시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되었다. 이런 원칙 하에 정부는 짐크로우 법과 인종분리 정책들을 더 착실히 수행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인종차별 문제를 발생케 하였다. 흑인들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은 백인의 것에 비해 하찮았으며, 아예 흑인의 사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정책은 1954년이 돼서야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에 의해 폐지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아무리 같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인종을 차별한다고 보았다. 미국 연방의회가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하면서 이 정책은 완전히 말소되었다.

(다)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일반 국민들과 이민자들의 주거 분리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웨덴의 주거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스톡홀름 북서쪽 교외 지역인 허스비(Husby)다. 2013년 이민자들의 ‘차별 반대’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곳으로, 현재 주민 1만여 명 중 90%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자녀들이다. 허스비는 1970년대 유럽의 가장 야심 찬 건설 프로젝트였던 ‘밀리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자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노동계급을 이주시켰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산층·자본가들의 ‘분리’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범죄율도 증가하면서 백인 거주자들은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빈자리는 스웨덴 바깥에서 밀려든 이민자들로 채워졌다. 노동계급 분리가 목적이었던 공간이 스웨덴 사회로부터 이민자를 사실상 ‘격리’시키는 구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같은 ‘인종 간 분리’ 정책은 스웨덴인과 이민자들에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른바 ‘우리 대 그들(us-against-them)’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다는 게 WP의 진단이다.

(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노OO존’의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발단이 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은 찬성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10명 중 6명(60.9%)이 만 13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로 인해 소음 문제나 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66.1%였다. 또 전체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며(69.2%),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68.7%)라고 봤다.

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일단 배제하고 보는 배타적 성격의 ‘NO’만 많아지는 상황에 있다. 최근에는 ‘노키즈존’에 이어 ‘노틴에이저존’까지 등장했다. 이를 도입한 업주들은 상업성과 고객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예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부 10대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제한 대상자들은 나이 외에 별도로 제지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입 자체가 불가해졌고, 동시에 소비할 자유까지 잃게 됐다. ‘노틴에이저존’에 이어 ‘노실버존’까지 ‘NO’가 반영된 장소는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YES’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평가하시오.

[문제 2]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나)를 참고하여 (라)의 문제점을 말해 보시오.

[문제 3] 제시문 (라)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시오.

2. 출제 의도

- 개인과 집단의 행복, 평등과 차별에 대한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이를 현대사회 주요 문제의 하나인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 정책과 노OO존을 연결지어 분석하는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번 문항은 제시문의 (가), (나)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의 문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2번 문항은 현재 우리 사회의 노OO존 현상에 대해 (가)와 (나)의 주어진 정보에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3번 문항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노OO존 현상의 양면을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 문항 분석

- 1번 문항 : 제시문 (가)는 공리주의의 개인과 집단의 행복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의미에서 제시문 (다)의 허스비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산층·자본가들의 '분리'와 '이민자의 '분리' 현상이 개인과 집단의 행복의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평가하고 이를 관련지어 (나)에 나타난 분리 평등 정책의 시행과 말소를 통해 (다)의 허스비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산층·자본가들의 '분리'와 '이민자의 '분리' 정책이 차별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2번 문항 : 제시문 (가)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올바르고 선하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집단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합이다’라는 정의라는 것에서 (라)의 ‘노키즈존’, ‘노틴에지저존’, ‘노실버존’까지 다양한 ‘노OO존’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분리 평등 정책이 평등이 아닌 차별인 것처럼, 다양한 ‘노OO존’은 분명하게 공간분리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번 문항 : 최근 ‘노OO존’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해당하거나 특정 집단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출입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평등권 침해’를 근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신분 등으로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특정 손님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OO존’으로 거부할 만한 권리가 충분한지 또는 불필요한 차별까지 조장할 수 있는 않은지 등. 설부른 일반화로 해당 계층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을 수 있다. 처음의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점점 더 다양한 ‘노OO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배려가 필요함을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상 답변

[문제 1]

제시문 (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리주의는 개인 행복 총합의 최대화가 옳은 것이며 “모든 개인의 행복(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공의 행복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집단이 그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과는 다른 어떠한 별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허스비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산층·자본가들의 ‘분리’와 이민자의 ‘분리’ 현상은 (가)의 입장에 따르면 옳바르고 선한 행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선 스웨덴 정부가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자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노동계급을 이주시킨 것은 노동계급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본 계급과 노동계급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들로 분리된 것입니다. 게다가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여 허스비에 살던 노동자 계층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착 공간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동계급이 떠난 자리를 주거공간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스웨덴 사회로부터 이민자를 사실상 ‘분리’를 넘어 ‘격리’시키는 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스웨덴인과 이민자들에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결국 허스비 지역의 주거지역 분리 정책은 노동계급과 이민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굳이 노동자 계급이나 이민자들의 불행의 크기를 중산층과 자본가 계급의 행복의 크기와 비교하지 않아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으로 백인과 흑인의 사용 구역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하면서 이 정책은 완전히 말소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용 구역을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다)의 스웨덴의 극우 정당이 실시한 (다)의 허스비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산층·자본가들의 ‘분리’와 이민자의 ‘분리’ 현상은 차별입니다. 우선 주택의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하나, ‘누가리고 아웅’식으로 중산층·자본가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주거 공간을 분리한 것이고 이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여 저임금 노동자들마저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아도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갈 곳 없는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인 스웨덴인과 이민자의 분리로 이어져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자칫 이 문제는 (나)의 백인에 비해 흑인들이 인종 차별을 받았던 상황과 유사하게 백인 중심의 스웨덴인에 대해 이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인종 차별, 인권 침해로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도 아니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간을 분리한 차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2]

제시문 (가)를 보면 사람들이 쾌락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바르고 선한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유로 일정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노OO존’에 대한 찬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OO존’의 시작은 ‘노키즈존’으로 식당 등에서 어린아이들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일부 식당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라)에 의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70%이고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노틴에이지존’, ‘노실버존’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기보다는 나와 개성이나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심리가 ‘노OO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별하여 우리와 그들로 구분이 되면 나와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OO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확대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노OO존’의 대상이 되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노OO존’은 공간분리로 인한 차별입니다. 나이나 신분 등으로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을 거부당하는 상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과 자유권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노키즈존’의 예를 들면, ‘노키즈존’의 시작은 ‘버릇없는 아이와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였지만, 결국 그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이 제한의 대상이 되었고 이어 다양한 ‘노OO존’으로 확대되어 나이나 신분 등으로 특정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3]

제가 어떤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 나이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노OO존’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러한 ‘노OO존’의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특정계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하여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로서 그들 때문에 다수의 해당 나이 대의 사람들이 모두 거부당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에 따라 종사하는 직업에 있어서 직업선택, 영업 등에 종합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특정 손님을 받고자 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할지라고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또한 해당 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어주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키즌존’으로 시작된 것이 ‘노틴에이지존’, ‘노실버존’으로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아이들과 틴에이지,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심어주게 되고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이들은 버릇없고, 십대는 무개념하며, 중장년층은 꼰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OO존을 만들기보다는 ‘음식점 안에서 뛰어다니면 이용 제한’ 또는 ‘내부에서 기저귀를 갈 경우 퇴장’ ‘흡연, 욕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퇴장’ 등 자제해야 하는 행동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장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에서 십대 그리고 어린이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 노인이 될 것입니다. ‘노OO존’의 확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차별을 지지하게 만들고 정당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5. 지도 방안

-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3가지 문항에 대해 답변시간이 약 6분이므로 평소에 연습할 때 미리 시간을 재어 보며 5~6분 정도의 길이로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답변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추가질문이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6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항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예상방향은 있을지 몰라도 딱 정해놓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제 의도를 보면 문제에 대한 이해력도 묻고 있지만, 답변 전개의 논리적 일관성과 타당성, 근거의 타당성 등도 평가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에 집착하기보다는 제시문 속에서 최대한의 근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엮어 나갈 수만 있으면 되겠다.
- 특히 문항 3번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 모호하게 말끝을 흐리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 된다.
- 문항 1과 2는 일단 제시문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하는 문항이므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몰입해서 제시문의 방향과 어긋나는 답변을 하면 안 된다. 문항 3번의 경우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답변이지만 극단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시문의 내용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토대로 뻗어나가도록 한다.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I

전형 개요

- 전형 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서류	면접평가
단계별	1단계	100%(5배수 선발)	
	2단계	70%	30%

II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1. 면접 문제

(가) 그는 사실상 공공 이익을 증진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외국 산업의 부양보다 국내 산업의 부양을 선호하면서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할 뿐이고,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경영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 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자신의 의도에 들어 있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더욱이 그 목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사회에 더 많은 해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사업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좋은 일을 결코 알지 못한다.

(나) 유교는 인간이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선한 본성이 잘 자라도록 노력할 때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마을, 사회,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교는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큰 도(道)로 하나가 되는 대동(大同) 사회를 꿈꾸었다. 대동 사회는 이상적인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커다란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공자의 말을 들어보자. “큰 도가 행해졌을 때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었고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게 했다. 몸소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감사한 피가 막혀서 일어나지 못했고, 도둑이 훔치거나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바깥문을 여닫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대동이라고 한다.”

(다) 지난해 9월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 금연아파트는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다. 법안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금연아파트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까지 제지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며,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집 안까지 들어와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

〈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비교 〉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일인당 국내 총생산		\$ 33,727	\$ 12,154
지니계수	세전 소득 기준	0.45	0.49
	세후 소득 기준	0.27	0.43

※ 지니계수 : 소득이 불평등한 정도를 측정하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상황을 설명하시오.

[문제 2] 제시문 (가), (나)와 연관지어 제시문 (라)의 자료를 해석하시오.

[문제 3] 제시문 (다)의 내용과 유사한 사회문제의 예를 들고, 제시문 (가), (나), (라)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보시오.



2. 대학측 출제 의도

- 1번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권, 자율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 2번 문항은 도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 3번 문항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예를 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3. 문제 해설

- 제시문 소개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소개된 애덤 스미스의 글을,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다루는 공자의 글을 각각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의 자율과 선택권 vs 공동체의 이익 추구라는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에서 다루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의 갈등의 사례로 금연 아파트 지정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소재로 한 글을 선정하여 이를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외국의 Database 자료를 재구성하여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및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를 도표 형식으로 비교하고 있다.
- 1번 문항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개인의 자율과 선택권, 그리고 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금연 아파트 지정에 나타난 갈등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번 문항 : 고등학교 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회현상의 분석’ 부분을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도표를 해석하고, 경제에서 다루는 ‘국민소득’, ‘성장과 분배’,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율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제시문 (가)와 공동체 사회, 공공 이익 실현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제시문 (나)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번 문항 : 제시문 (다)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적절한 사례를 예로 들고, 개인의 권리(제시문 (가))와 공공 이익(제시문 (나))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상 답변

[문제 1]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나 목적 없이 오롯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 추구, 즉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시문 (나)는 공동체의 이익, 공공선의 추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사회인 ‘대

동 사회’는 개인이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하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보다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우선시해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둘러싸고, ‘금연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개인의 자율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을 위한 법이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흡연 여부 확인의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자율과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볼 것입니다. 반면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주민들의 그릇된 욕망으로 대동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볼 것입니다. 아무리 사적 공간에서 흡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주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흡연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문제 2]

제시문 (라)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및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OECD 회원국은 세전 0.45에서 세후 0.27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시장 경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소득을 고루 잘 분배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제시문 (나)가 추구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OECD 회원국은 일부 부유층만이 아닌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대동 사회’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OECD 비회원국은 지니계수가 세전 0.49에서 세후 0.43으로 회원국에 비해 감소폭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시문 (가)가 추구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일하고, 그렇게 획득한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OECD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정책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문제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회문제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초과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생기거나, 기업과 오염물질 측량자 간의 유착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이는 제시문 (가)가 추구하는 기업(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제시문 (나)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염물질을 규정보다 더 배출할 기업이 덜 배출할 기업에게서 오염물질 배출권을 구입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별다른 정부 개입 없이도 양쪽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선 초과 기업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모범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 보다시피 정부가 개입하여 초과 기업에게 세금을 걷으면 세후 소득기준의 지니계수를 낮추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은 그 돈으로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여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세대학교



I

전형 개요 :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지원자격	재학생 (2020. 02. 졸업 예정자)
일정	면접 : 2019. 10. 19.[토] 합격자 발표 : 11. 15.[금]
전형 방법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40%, 서류 60%(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 교과 : Z점수(50%) + 등급점수(50%) - 3배수 선발 -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점수 40% + 면접 60%
면접 유형	<p>[일반 면접]</p> <p>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2가지 방식으로 면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평가 - 2차 : 교내 활동 기반의 자기주도성 및 창의적 해결 능력 확인 <p>제시문 기반+활동기반</p> <p>제시문 기반 : 제시문(도표, 그래프 포함)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 확인</p>
유의 사항	면접시 교복 착용 금지, 추천서 제출 없음, 수능 최저등급 없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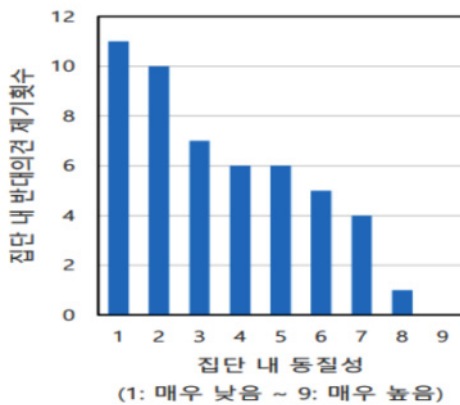
기출문제

1. 2019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문제와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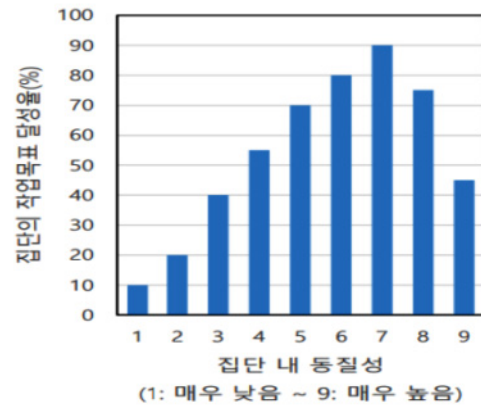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두 그래프는 동아리, 조모임 같은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의사소통 양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이다. 동질성은 구성원들 간의 성향이나 특성이 비슷한 정도를 뜻한다.

그래프 1. 집단 내 동질성과 의사소통 양상



그래프 2. 집단 내 동질성과 성과



[문제 1] 위 두 개의 그래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 2] 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2.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은 집단 내의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횟수와 집단 내 동질성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반대의견 제기횟수가 비례해서 적어지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면 반대의견 제기가 완전히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2〉는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의 작업목표 달성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면 작업목표 달성율이 증가하지만, 동질율이 매우 높은 8~9의 척도에 이르면 오히려 달성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성율이 줄어드는 원인은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질적인 집단은 작업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결정이나 리더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래프 1〉에 의하면 동질성이 높은 양상을 반대의견 제기횟수와 연결하고 있다. 동질성은 높지만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비동질자의 존재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집단 내부에 불만이 있는 소수의 구성원이 있더라도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집단의 조직문화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즉 통계적 수치로만 동질집단으로 비춰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정한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집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2]

동질한 생각이나 입장을 가진 구성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집단의 성과는 일정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면모를 보이지만, 완전한 동질집단에 가까워지면 성과의 정도가 급속도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된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고루 섞여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착안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 과제해결을 위한 조모임 활동 또는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문화 과목의 선생님이 〈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이라는 모둠 과제를 부여했다고 하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모임 활동에 앞서 모둠을 구성하는데, 1조는 남학생의 동질집단, 2조는 여학생의 동질집단, 3조는 남녀가 섞인 이질집단으로 구성했다고 가정하자. 1조와 2조의 학생들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찬성과 반대 논의에서 아무래도 특정 논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즉, 1조는 남성 집단, 2조는 여성의 성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부연하자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자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03년에 공무원임용시



험령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바 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1조는 하위직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전적으로 탄성할 가능성이 있으나, 2조는 반대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3조의 찬반 논의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군가산점부활논란이나 여성의 군복무제 등 성별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논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많은 경우 순수 동질집단으로만 구성된 집단보다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수준이 뛰어날 가능성이 크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역시 확보될 여지가 많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조직으로 확대한다면, 다양한 세대, 지역, 이념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집단이 동질집단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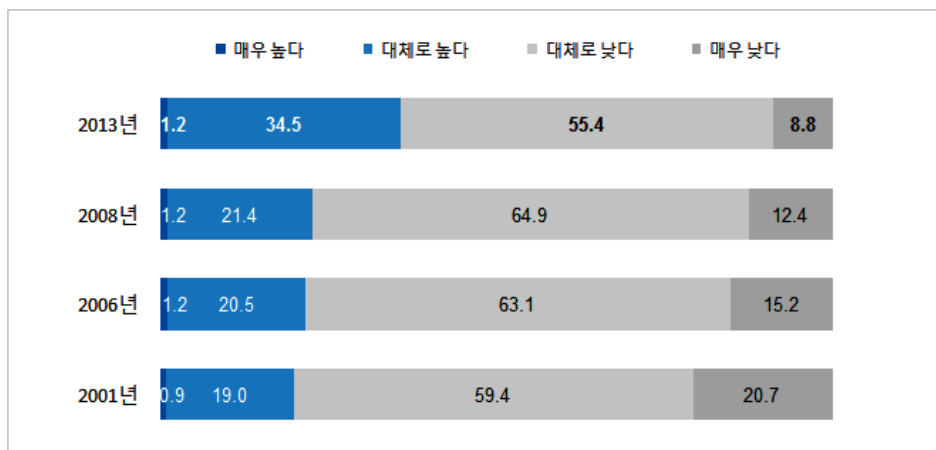
1.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연습문제와 풀이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두 그래프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래프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비한 사회 복지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프 2는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10점 척도로 답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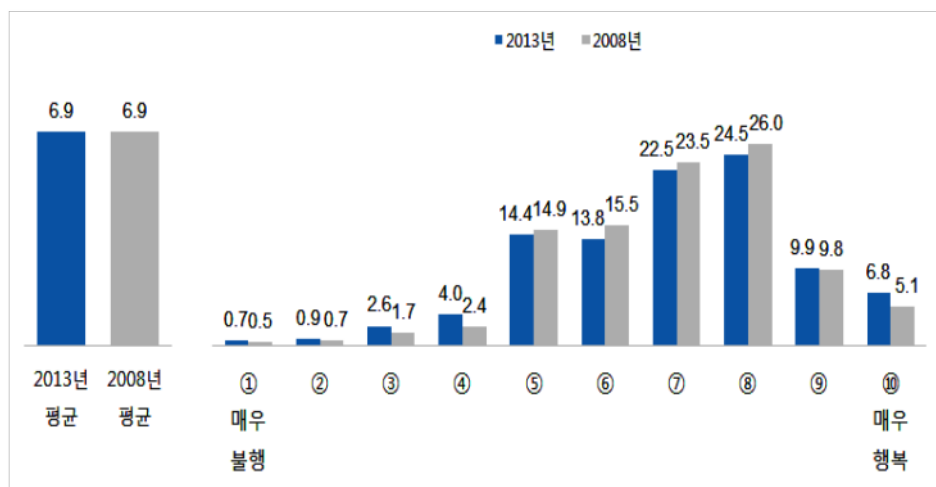
〈그래프 1〉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

(단위: %, 문체부)



〈그래프 2〉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문체부)





〈그래프 3〉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

(단위: 점, OECD, 2016, 38개국 조사)



[문제 1] 위 〈그래프 1〉과 〈그래프 2〉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 2] 〈그래프 3〉을 참고할 때,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함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 답안의 방향

[문제 1]

경제 수준 대비 사회 복지 수준의 정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래프 1〉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수치가 64.2% ‘높다’고 답변한 수치는 35.7%로, 2008년 조사 결과에 비해 ‘높다’는 응답의 수치가 13.1%p 증가했으나, 여전히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반응은 사회복지 수준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미흡한 점에 원인이 있다. 일부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그래프 2〉를 보면, 중위 수준인 5점 ~ 8점의 응답은 2010년에 비해 2013년의 수치가 감소했다. 반면, 매우 불행하다고 답변한 1점부터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답변한 4점까지의 비율이 늘어났고, 동시에 매우 행복하다고 답변한 10점과 9점의 수치 역시 증가했다.

〈그래프 1〉과 〈그래프 2〉의 통계 자료를 추론한 것을 요약해 보면, 2008년도에 비해 2013년도의 ‘경제 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행복 수준’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복 수준’과 관련한 통계에서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자료에서는 ‘매우 불행’과 ‘매우 행복’의 비중이 중도층에 비해 늘었음을 고려할 때, 소득 등의 경제 지표를 포함한 생활의 전반에 걸쳐 ‘양극화’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 2]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참고할 때, 삶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그래프 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은 '공동체, 환경, 건강, 삶의 만족,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최하위에 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나 소속 공동체의 약화로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가 깨지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이 직장인은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친구나 이웃이 누 군지도 모르고 살 정도로 각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경 부문에 대한 인식도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수질' 등에 대한 불만족이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폭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인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는 OECD 국가 대비 소득이 적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길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고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삶,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교, 직장, 마을공동체에서 질적으로 더욱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에 책임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한 경쟁,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학계, 교육기관,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과 노동,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며,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이 요청된다.



3.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연습문제와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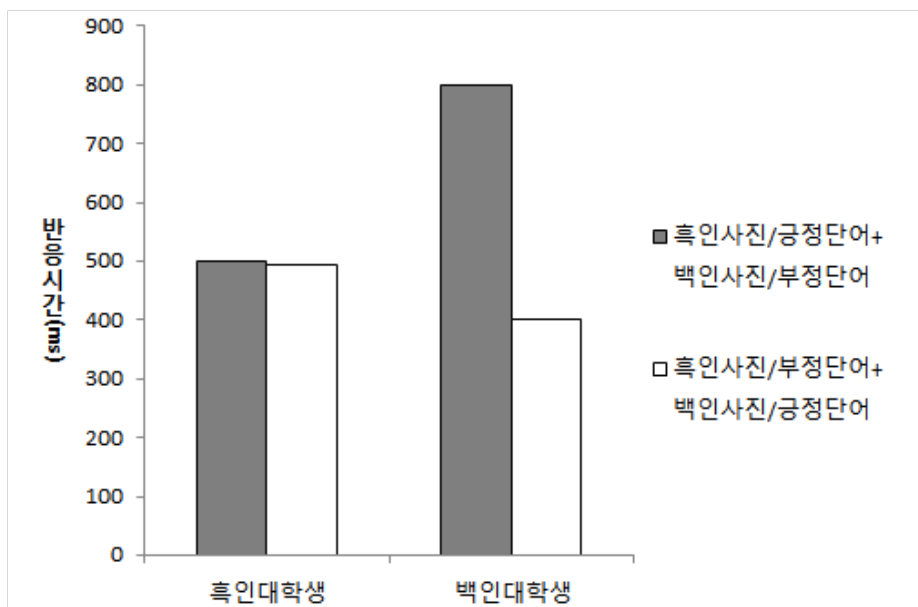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프 1은 흑인 대학생 집단과 백인 대학생 집단의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이다. 미국 대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 사진과 단어를 차례로 보게 되는데, 흑인 사진이거나 부정단어이면 왼쪽 키를, 백인의 사진이거나 긍정단어이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하는 실험이다.

그래프 2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해 4세부터 16세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32명이 백인과 흑인의 사진을 보는 동안에 나타난 우측 편도체의 활성도를 측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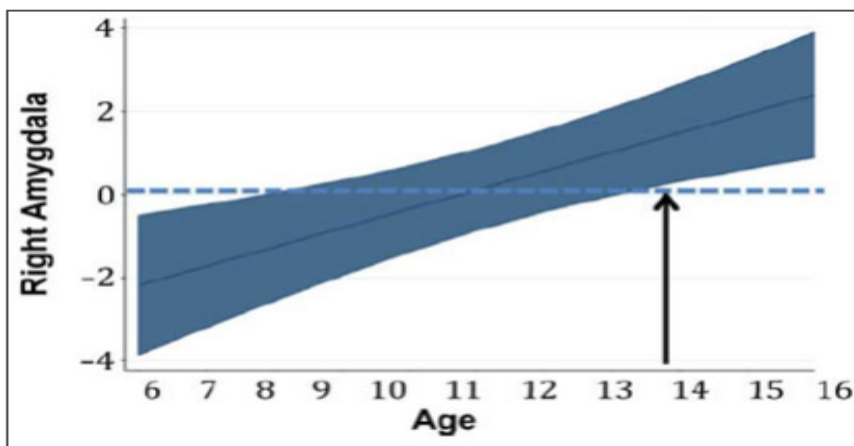
〈그래프 1〉

(2013. 미국 대학생의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



〈그래프 2〉

(2013. Right Amygdala=우측편도체)



[문제 1] 위 <그래프 1>과 <그래프 2>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 2] [문제 1]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4.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의 암묵적 연합검사 결과에서, 흑인 대학생 집단은 흑인사진과 긍정단어 혹은 백인사진과 부정단어를 제시한 경우의 반응시간과 흑인사진과 부정단어 혹은 백인사진과 긍정단어를 제시한 경우의 반응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백인 대학생 집단은 흑인사진과 긍정단어 혹은 백인사진과 부정단어를 제시한 경우의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긴데 비해, 흑인사진과 부정단어 혹은 백인사진과 긍정단어를 제시한 경우의 반응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둘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흑인 대학생 집단에서는 인종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백인 대학생들은 흑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 2>는 흑인 얼굴을 보는 동안에 우측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 활성화의 정도는 나이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편도체의 민감도는 어린이에서는 보이지 않고 14세 이후인 청소년기부터 나타난다. 이런 실험 결과는 다른 인종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출생 때부터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습을 내면화하는 중에 체득한 인종 편견과 고정관념이 편도체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 2]

<그래프 1>과 <그래프 2>는 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편견 극복을 위한 첫 단추는 다른 인종과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친구들이 동일 인종이 아닌 다양한 인종 집단일수록 어린이들은 다른 인종을 볼 때 편견에 덜 치우치게 될 것이다. 다른 집단과 접촉이 잦을수록 집단 간 갈등이나 편견이 감소하지만, 단지 학교와 같은 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놓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목표를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인종 출신 학생들과 서로 협력하고,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며, 긍정적이고 비경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이끄는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다문화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도교육과정 안에 실질적인 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종주의는 대중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중문화에 깃들여 있는 편견은 대중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깡패, 악당, 사기꾼이 주



로 흑인 배우로 설정되면 이런 방송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흑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각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은연중에 전라도 사투리가 전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던 적이 있었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보편화하는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 인종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주의하고 지양할 필요가 있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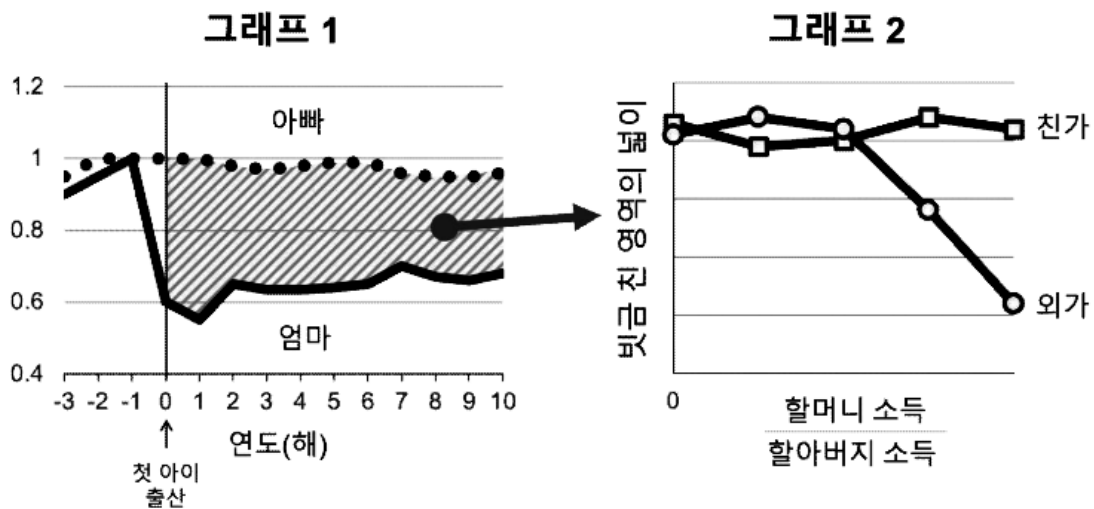
2019 대입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 우수형-인문)-오전

1. 전형개요

지원자격	재학생(2020. 02. 졸업 예정자)
일정	면접 : 자연국제계열 2019. 11. 23.[토], 인문사회계열 11. 30[토] 합격자 발표 : 12. 10.[화]
전형 방법	[1단계] - 서류 100%(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 서류 평가 - 비교과에 관한 증비서류 제출 불가 -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 - 3배수 [2단계] - 1단계 서류 60% + 면접 40%
면접 유형	[일반 면접]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면접 실시 - 제시문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함. - 서류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유의 사항	면접 시 교복 착용 금지, 추천서 제출, 수능 최저등급 없음.

2. 2019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인문)’ 문제와 풀이

아래는 유럽의 한 국가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 1>은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2>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이 <그래프 1>에서 빗금으로 표시한 영역의 넓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 2>에서 ‘친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하고, ‘외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한다. ‘소득비율 = 0’은 할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 1] <그래프 1>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그래프 2>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3.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은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모의 소득이 달라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출산 이전에는 아빠와 엄마의 소득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출산 이후 엄마의 소득이 아빠의 소득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출산 이후 엄마가 주로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해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 퇴사를 선택하여 여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일부 여성은 1~2년의 한시적 육아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지만 출산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엄마는 출산 이후 본래 직장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시간제(비상시) 노동에 고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만 의존하는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육아를 여성들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로 전향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회적 풍조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아빠는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 이후에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빠의 육아 휴직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 짐작할 수 있다.

[문제 2]

〈그래프 2〉는 부부의 첫 자녀 출산 후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부부의 자녀 출산 이후 연도가 지남에 따라 친가 할아버지 소득 대비 할머니의 소득 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외가는 출산 이후 일정 시기에 이르면 외할아버지 소득 대비 외할머니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를 엄마의 친정, 즉 아이의 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외가 소득을 보여 주는 ‘깍은 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는 두 번째 변량부터는 엄마의 재취업과 동시에 외할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마를 대신하여 외할머니가 육아에 나서는 현상에 대비하여 친할머니의 참여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은 매우 특이한데, 이 역시 아빠(남편)의 권위와 연결된 시댁의 위상 때문이 아닐까 판단한다. 육아에 대해 극단적인 여성(모계) 의존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이 국가는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여성의 교육수준(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4.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인문)’ 연습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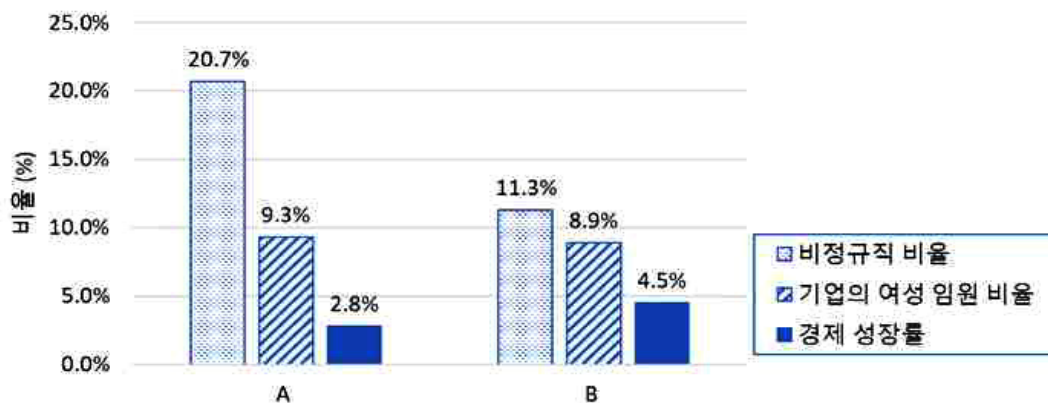
아래 자료들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성별 간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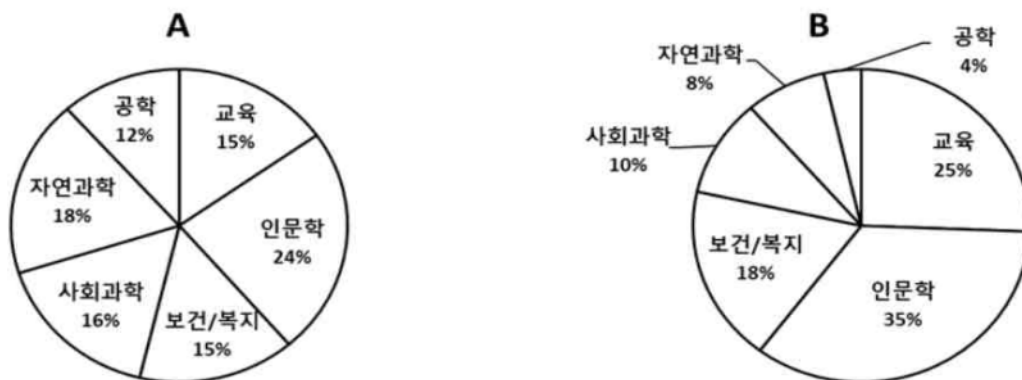
(질문 : 우리 사회에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가?)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13.3%	22.9%	27.5%	25.4%	10.9%
B	6.2%	15.3%	23.7%	36.5%	18.3%

〈그래프 1〉



〈표 2〉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





[문제 1] <표1>과 <그래프 1>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표2>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5. 답안의 방향

[문제 1]

<표 1>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성별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A국은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국민들이 성별 간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A국 국민의 36% 이상이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 갈등이 A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 1>은 두 국가의 고용형태, 여성 기업임원 비율, 경제 성장률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국은 B국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서는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고 경제성장률은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고용할당제에 의한 성별 갈등의 증폭이 A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A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적고 성별 간 갈등이 심한 국가였기 때문에 여성고용할당제를 개선의 목적으로 도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A국의 경우 여성고용에 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이나 여성임원 비율, 여성 편향 대학 전공 선택 등이 속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풍토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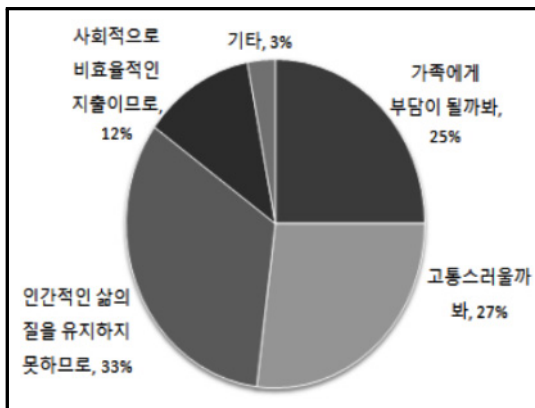
<표 2>는 두 국가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과 경제 활동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A국의 여성들은 B국 여성들에 비해 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고루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국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 인문학을 전공한 것에 반해 A국 여성들은 공학이나 과학 영역의 전공자들도 많다. 이는 A국 여성들의 경우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던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로 전공하는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B국 여성들은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기 수월한 영역의 전공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A국이 B국에 비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국의 여성들은 B국의 여성들에 비해 좋은 조건 하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6.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인문)’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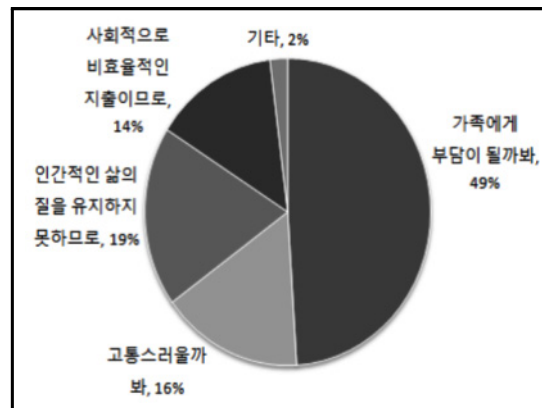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표 1〉과 〈표 2〉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1〉은 불치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안락사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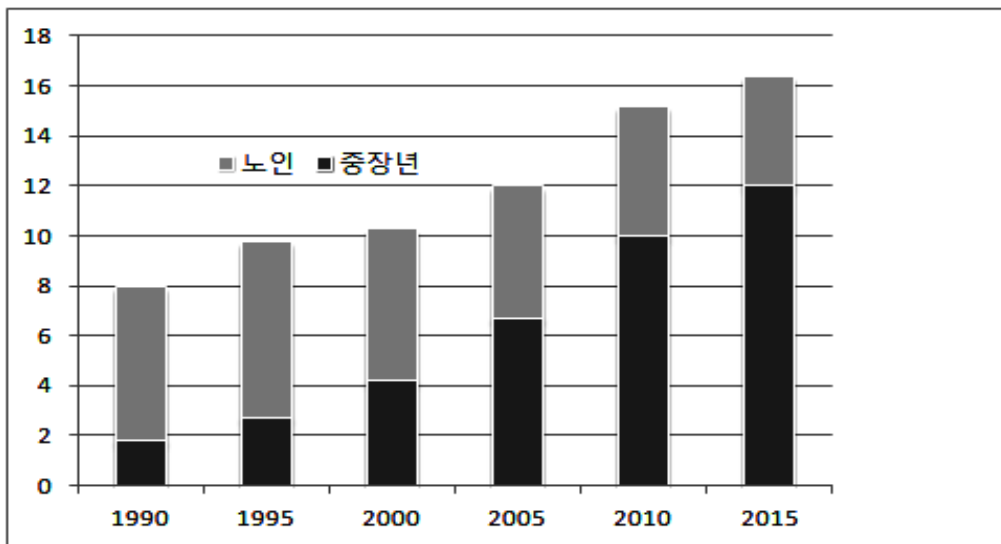
〈표 1〉 중장년(40세 ~ 59세)



〈표 2〉 노인(65세 이상)



〈그래프 1〉 불치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안락사 비율



주:

- 1) 1990-2015년 기간 중 전체인구에서 중장년과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것
- 2)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의식조사 결과는 1990년-2015년 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문제 1] <표1>과 <표2>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그래프1>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7. 답안의 방향

[문제 1]

<표 1>과 <표 2>는 각각 중장년 그리고 노인 집단의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의 반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이다. 중장년은 생명연장 치료를 반대하고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고통스러울까 봐’ 또는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므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존엄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편안한 죽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권리에 대한 처분권 등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노인들은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므로’라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염려, 사회적 비용 문제와 연결하여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은 본인의 입장이나 이해보다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 가족을 중시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중장년은 개인의 자유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중장년들은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각한 고통에 대한 예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호스피스완화 의료사업이 증가하고 일반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문제 2]

<그래프 1>를 볼 때, 과거에는 불치병에 대한 안락사 비율에서 중장년 집단이 노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후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중장년 집단의 안락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전반의 관심사가 개인 삶의 질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느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유지는 막대한 비용을 지운다는 점,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편안한 죽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이타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원인이다.

특히 중장년층이 안락사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전에 ‘생명을 고의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점, 다른 나라에서 안락사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분위기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 사회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단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90년대에는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회전체의 이득을 위하여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인간의 존엄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비중이 보다 높아지는 입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2019 대입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사회)-오후

1. 전형 개요

면접 유형	제시문 기반 면접 :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필요시 서류 확인 면접 언더우드국제대학과 국제형에서는 영어제시문 출제 가능
전형 요소	[1단계] 서류평가(100%)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일정배수 선발, 다수의 평가위원에 의한 종합평가 [2단계] 1단계 성적(60%) + 면접평가(40%)
주제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방법과 영향

2. 2019학년도 ‘활동우수형(사회)’ 기출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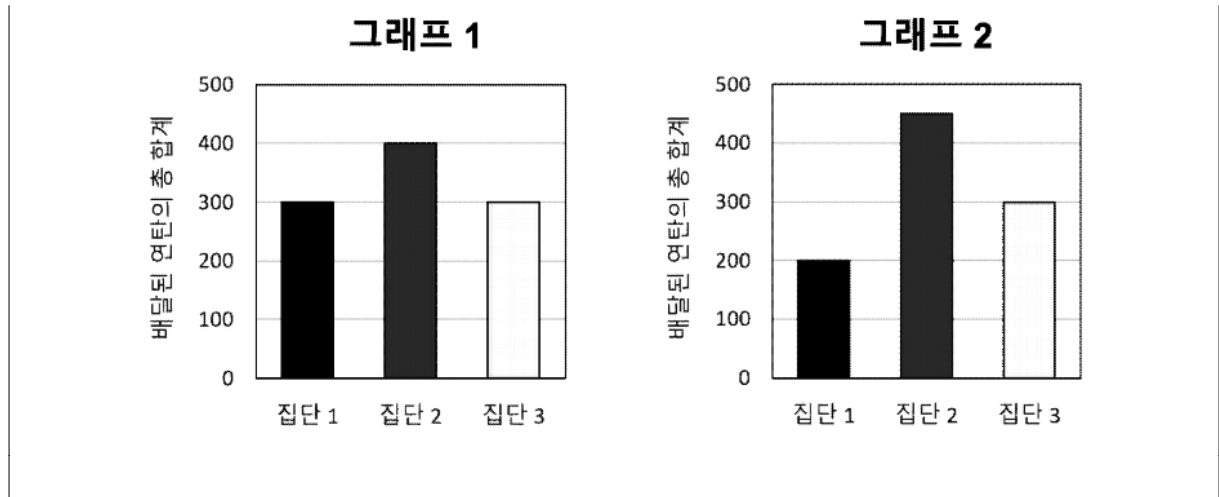
연말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 120명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연탄 나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40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집단 1 : 이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행사 전에 지급받았다.

집단 2 : 이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을 받는 이웃들이 고마움을 담아 적은 손편지와 소정의 선물을 활동 전에 전달받았다.

집단 3 : 세 번째 집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의 그래프 1은 이번 행사에서 각 집단이 3시간 동안 배달한 연탄의 총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년 후에도 같은 집단의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불러서 연탄 나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때는 아무 집단에게도 수고비나 선물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그래프 2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 1] 위 <그래프 1>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비교할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실제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3.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을 보면, 손편지와 선물을 받은 ‘집단 2’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133% 정도로 가장 많은 양의 연탄을 배달하였고, 수고비를 받은 ‘집단 1’과 아무 것도 받지 않은 ‘집단 3’의 배달량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같은 마음으로 실시한 자원봉사에서 물질적 보상은 보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지만, 물질적 보상이 아닌 받는 이의 진심어린 마음이나 감사의 표시는 훨씬 큰 성과를 이루어 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외적 보상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내적 보상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보상이 일의 효율을 높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 1>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단순히 봉사의 동기만 가지고 참여한 ‘집단 3’과 수고비라는 외적 보상을 받은 ‘집단 1’이 일의 효율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외적 보상이 반드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도움을 받은 이웃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선물을 받게 된 ‘집단 2’의 일의 효율이 훨씬 올라간 것을 보면, ‘집단 2’는 그들이 받은 외적 보상이 내적 보상으로 이어지며 스스로 그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기에 일의 효율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집단 1’과 ‘집단 2’가 받은 외적인 보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금전적 보상인가, 비금전적 보상인가로 뚜렷이 구분된다. 돈은 어떤 상품의 가치를 매기고 교환의 매개가 되는 척도이므로, ‘집단 1’은 이 봉사를 통해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이를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생각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들은 봉사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내적 동기가 생성될 수 없었고, 작업량도 임금을 받지 못한 집단보다 더 나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집단 2’의 봉사자들은 이웃들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와 선물을 받으며 그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가능했고, 그것이 봉사자 내면에서 봉사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렇게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적 보상의 형태가 금전적 보상보다 봉사자들의 내적 동기를 높여, 봉사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 2]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비교해 보면, 1년 후 세 집단에게 동일하게 외적 보상을 제거했을 때, ‘집단 3’은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만, ‘집단 1’은 효율성이 떨어졌고 ‘집단 2’는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제 1]에서 설명한 내면화된 동기의 중요성을 더욱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3’의 경우, 처음부터 가졌던 봉사의 내적 동기가 있었기에 보상과는 상관없이 1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 1’의 경우, 애초 가졌던 봉사의 내적 동기가 외적 보상으로 인해 오히려 변질되어 버리고, 외적 보상에 따라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게 만듦으로써, 1년 후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외적 보상이 오히려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2’의 경우는 외적인 보상이 외적 보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후 외적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봉사활동에 적용하려면 봉사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러한 한 방법으로, 봉사자들이 본인들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서 그치지 말고, 봉사 이후에도 도움을 받은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아진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봉사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본인들의 기여도를 직접 느끼게 된다면, 봉사하는 내적 동기가 강화되어 더욱 봉사에 큰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4.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사회)’ 연습문제와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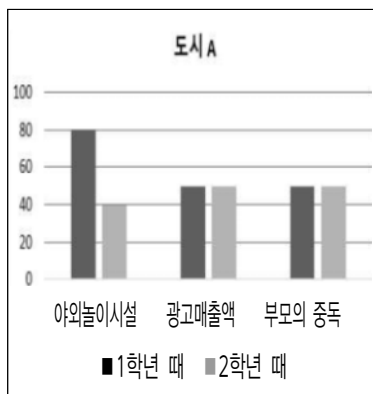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야외놀이시설 보급 정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광고의 매출액, 해당 학생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했다.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각 요인들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측정값은 0에서 100 사이로 조정했고, 전국 평균값은 두 차례 모두 50이었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도시 A〉, 〈도시 B〉, 〈도시 C〉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표와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조정된 측정값의 평균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중독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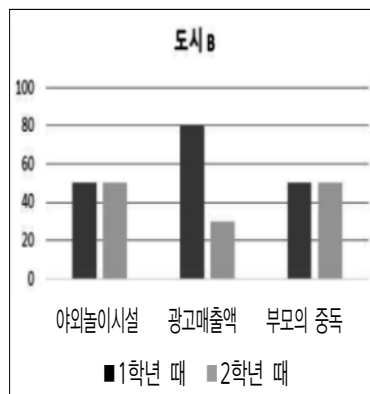
〈표 1〉

	스마트폰 중독 정도			
	도시 A	도시 B	도시 C	전국
1학년 때	30	80	80	50
2학년 때	80	20	8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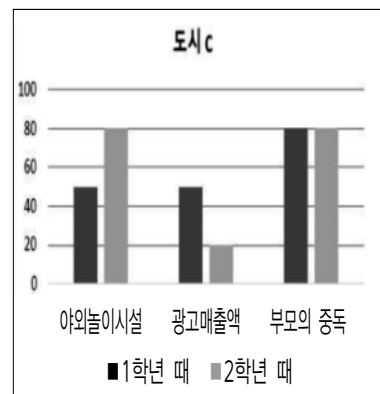
〈그래프 1〉



〈그래프 2〉



〈그래프 3〉



[문제 1] 〈도시 A〉, 〈도시 B〉, 〈도시 C〉에서 1학년 때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위 세 가지 요인과 연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문제 2]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가?

5. 답안의 방향

[문제 1]

세 도시의 1학년 때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비교해 보면, <도시 A>는 평균보다 중독 정도가 낮고, <도시 B>와 <도시 C>는 평균보다 중독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30으로 평균보다 낮은 <도시 A>는 광고매출액과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둘 다 평균 점수인 50임에 비해 야외놀이시설의 정도는 평균점수보다 훨씬 높은 80이다. 이로 미루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낮춰준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도시 B>는 야외놀이시설의 정도와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둘 다 평균 점수인 50이나 광고매출액이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80인데, 스마트폰 중독 정도 또한 평균보다 높은 80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광고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많이 노출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사회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 B>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도시 C>는 야외놀이시설의 정도와 광고매출액은 둘 다 평균 점수인 50인데 비해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매우 높은 지수를 나타낸다. 즉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유전적 요인을 포함한 가정적 요인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 2]

<도시 A>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야외놀이시설 정도는 80에서 40으로 감소되었으나 광고매출액과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평균점수 50이 유지되면서 변화가 없다.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30에서 8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야외놀이시설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시 A>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 B>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야외놀이시설과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평균점수 50이 유지되면서 변화가 없으나, 광고매출액이 80에서 30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 정도도 80에서 20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감소는 광고매출액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광고 마케팅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도시 B>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도시 C>의 경우, 1학년에 2학년이 되면서 야외놀이시설의 정도가 50에서 80으로 증가하였고, 광고매출액은 50에서 20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감소를 이끄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1학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80에서 2학년이 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 역시 80으로 변화가 없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일 것임을 추정하게 하며, 가정적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우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에 제시된 표와 막대그래프의 정보만으로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테스트에서 제시된 정보만 사용한다면,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가 없으므로 부모의 중독 정도가 학생의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세가지 요인만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면 역시 가정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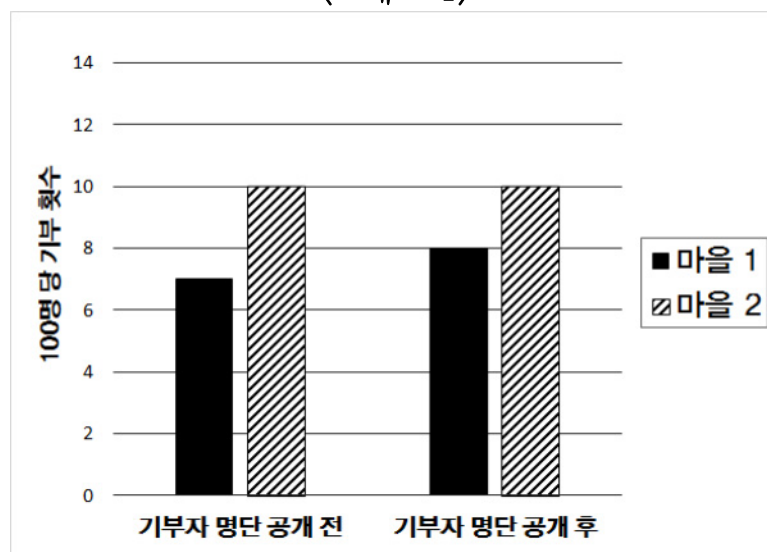


6.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사회)’ 연습문제와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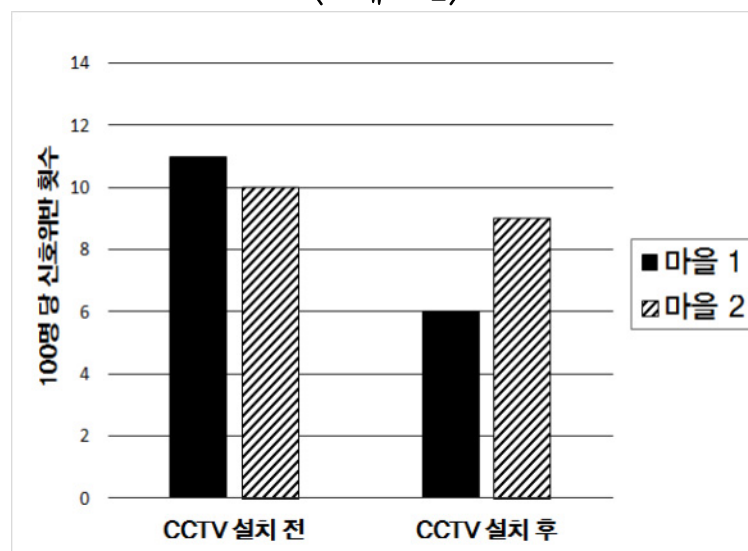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인구수와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두 마을(마을 1, 마을 2)을 선정하였다. 특정일부터 각 마을의 기부자 명단을 해당 마을신문에 공개하였고, 도로에는 두 마을 모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후 3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



〈그림 2〉



[문제 1] 위 <그래프 1>과 <그래프 2>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 2] 우리 사회에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한 예를 들어보고, 그러한 방안들이 가지는 한계점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7.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와 <그래프 2>를 통해 타자의 시선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는 외부의 시선이 선행에 대한 공지, 그리고 감시로 주어졌을 때 인간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부자 명단과 신호위반의 횟수를 통해 보여준다. 우선 <그래프 1>에서 보면, 외부의 시선이 선행을 알리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마을 1’은 7회에서 8회로 기부 횟수가 1%P 증가한 것에 비해, ‘마을 2’는 외부의 시선과 상관없이 10회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를 분석해 보면, 외부의 시선이 감시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마을 1’은 11회에서 6회로 무려 5%P 감소했고, ‘마을 2’ 역시 ‘마을 1’에 비해서는 감소의 폭이 적으나 10회에서 9회로 1%P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1’과 ‘마을 2’에서 행동의 변화 척도에 있어 차이는 있으며, 선행에 대한 공지 후에도 ‘마을 1’에서는 변화가 없었기는 하지만,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외부의 시선이 인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분명하며, 이때 외부의 시선이 작동하는 방식은 보상보다는 처벌에서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며,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비난받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존경의 욕구보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문제 2]

위의 결과를 보면 기부자 명단 공개와 CCTV 설치라는 외부시선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긍정적 실천이 강화되고 부정적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한 예들이 많이 있다. 연말이면 TV에서 공개적으로 기부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옳은 일을 한 사람의 뉴스를 내보내는 것 등은 타인의 시선을 보상으로 연결해 인간의 긍정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집 앞 골목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나 노상방뇨 등을 예방하는 방식은 외부의 시선을 처벌이나 비난에 맞춤으로써 인간의 부정적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방안들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효



과가 있다.

그러나 이렇듯 외부의 시선으로만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외부의 시선에 의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외면적 진정성은 내면적 자아의 직접적 표현이며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면과 내면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면의 진심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외부의 시선에 부합하는 이중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CTV 설치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CCTV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외부적 시선에 의한 인간 행동의 변화 유도는 근본적인 사회성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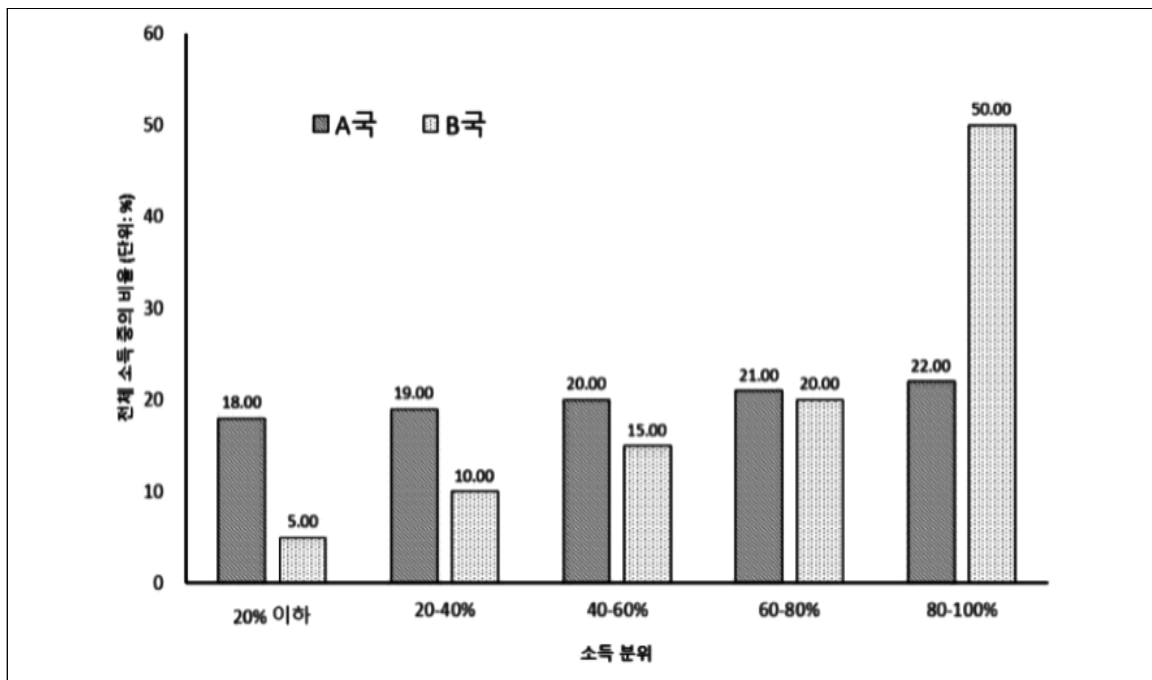
이렇게 외부 시선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내면화시켜 진정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변화된 행동이 가치있는 행위라는 생각으로까지 연결되어 스스로가 내면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꽃들을 심어 꽃밭을 조성했더니, 그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그곳에 투기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감시나 처벌을 통해 부정적 행위가 억제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위의 예와 같이 가치와 연결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면 외면의 변화가 내면의 진정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8. 2020학년도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사회)’ 연습문제와 풀이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 분위별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은 각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한다고 할 때 각각 20% 이하, 20-40%, 40-60%, 60-80%, 80-100%의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세로축은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8%를 벌어들인 반면 B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를 획득하였다.

〈그래프 1〉



한편 다음의 표는 A국과 B국의 성인 인구, 자본재의 규모 및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두 나라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재의 규모는 기계의 대수를 나타내고 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과 같다. 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자본재의 품질, 그리고 물가 수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A국	B국
20-65세 인구 (단위: 명)	1,000	200
자본재의 규모 (단위: 대)	2,000	400
국민소득 (단위: 억 원)	1,000	1,000



[문제 1] <그래프 1>과 <표 1>을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문제 2] A국과 B국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9. 답안의 방향

[문제 1]

<그래프 1>은 각 분위별 소득분배의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A국의 경우 각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이 20% 내외로 매우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B국은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만을 획득한 반면 가장 높은 소득을 얻은 집단은 전체 소득의 50%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A국에 비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각국의 생산 효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A국은 노동과 자본의 보유량이 B국에 비해 각각 5배씩이나 많지만 국민소득은 B국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A국의 성인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원인 반면 B국은 5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도 A국은 9천만 원인 반면 B국의 경우 1억 2,500만 원으로 B국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이를 토대로 B국의 생산 효율성이 A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 2]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첫째, A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B국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원의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므로 분배의 형평이라는 목표는 손쉽게 달성될 수 있지만 정부가 경쟁력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자원을 과다하게 배분할 경우 효율적 생산이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시장기구의 작동에 의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더 많은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생산요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계획경제에 비해 더 많은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되어 분배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A국은 누진 소득세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이고, B국은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일 경우가 있다. A국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것이고, 숙련도가 낮은 저소득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노동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총생산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B국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할수록, 숙련도가 더 높을수록 세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서비스 공급과 숙련도를 증진시킬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B국의 생산요소는 집약적으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육체적 장애 등으로 노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숙련도가 극히 낮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VI 2020 대입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기회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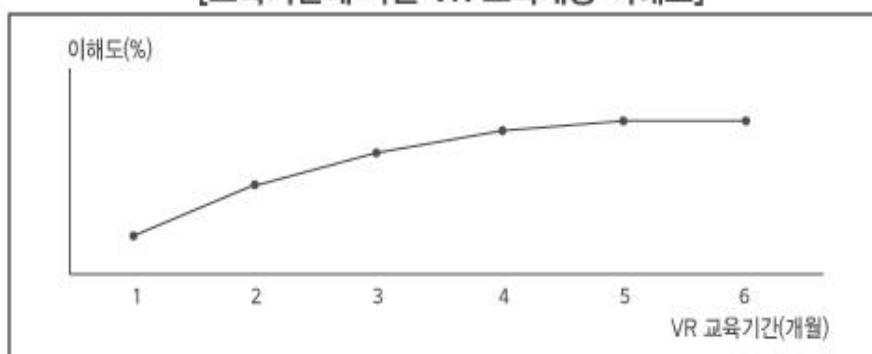
1. 전형 개요

구분	기회균형
일정	면접 : 2019. 11. 30.(토) 합격자 발표 : 12. 10.(화)
전형 방법	[1단계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수의 평가위원에 의한 종합평가, 250% 내외 [2단계 면접평가] 제시문 면접, 서류평가(60%) + 면접평가(40%)
면접 유형	[서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종합평가 [면접]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제시문을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서류 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유의사항	제출서류 : 학생부/자기소개/추천서 (+증빙서류) 수능 최저등급 없음

2. 2019 대입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기회균형 문제와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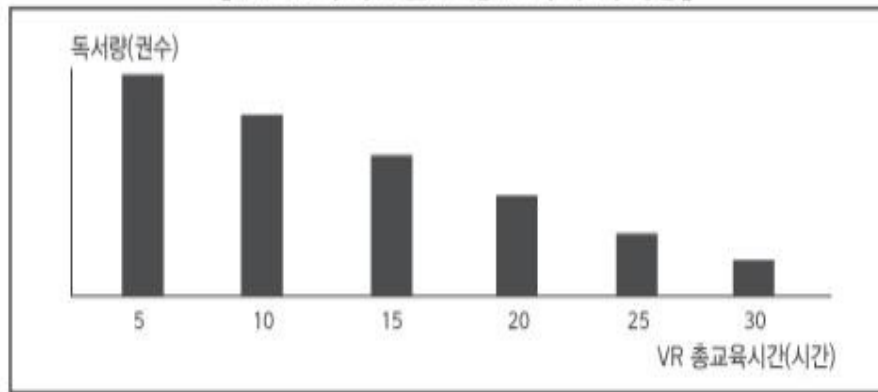
A 중학교에서는 최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생태 및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는 내용의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고,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도서목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였다. 학생들은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교육 시간을 이수하였다. VR 교육 실시 후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은 2학년 학생들의 '교육기간에 따른 VR 교육내용 이해도'를 측정하고, 'VR 교육시간별 권장도서의 독서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간에 따른 VR 교육내용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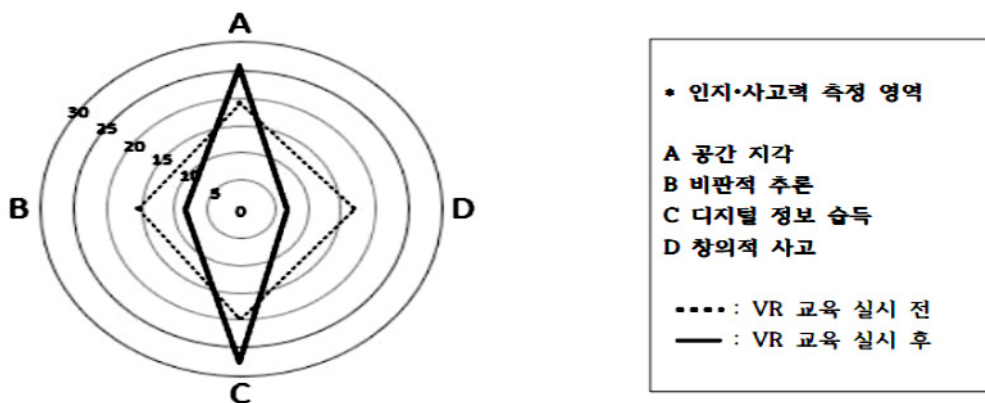




[VR 교육시간별 권장도서의 독서량]



[문제 1] 다음 그래프는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 교육을 받은 위 A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지·사고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지·사고력 측정은 VR 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래프에 표시된 값은 측정 영역별 평균값을 의미한다. 위 두 그래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래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문제 2] 다음 그림은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 교육을 받은 위 A 중학교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 사이에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은 VR 교육 이후에 발생했는데, 문제 1번의 그래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에 나타난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3. 답안의 방향

[문제 1]

A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목적은 ‘동물생태 및 윤리 의식’ 강화이다. 이를 위해 첫째,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VR(가상현실)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독서활동을 권장하였다. 학생들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VR교육 시간을 달리하여 두 가지 내용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교육시간에 따른 VR 교육내용 이해도’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3개월까지는 이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3~6개월까지는 이해도의 증가가 완만하며 특히 4~6개월에는 이해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사는 ‘VR 교육시간별 권장도서의 독서량’에 관한 내용인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시간이 늘어날수록 독서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VR교육의 초기에는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겨 책을 찾아보는 경향이 높는데 비해 교육시간이 길어질수록 교육내용의 이해도는 증가하지만 독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궁금증이나 관심 및 호기심이 저하되어 독서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1은 동물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지, 사고력 측정 결과를 교육실시 이전과 이후의 평균값을 제시하여 그 연관성을 분석하는 문항이다. 측정값을 비교해보면 실시 전에는 공간지각, 비판적 추론, 디지털 정보 습득, 창의적 사고가 평균 15~20점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VR교육 실시 이후에는 공간지각, 디지털 정보습득 능력은 각각 25점 이상의 결과를 보여 향상되었으나 비판적 추론, 창의적 사고는 0~5점 사이의 값을 보여 이전보다 떨어진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VR교육’은 공간지각, 디지털 정보습득



능력의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만 비판적 추론, 창의적 사고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그래프를 종합해보면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교육은 공간지각이나 디지털을 통한 정보습득의 향상은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관련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저하시켜 스스로 독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고하는 태도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비판적 추론, 창의적 사고가 저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제 2]

문제 2에서 제시한 그림은 동물 생태 및 윤리에 관한 VR교육을 받은 이후,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속 상황을 살펴보면 왼쪽 아래에 한 학생이 세 명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나 주변 학생들은 방관하거나 외면하고 있고,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장면은 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이 장면은 VR교육을 받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라 학생들이 받았던 VR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은 VR교육을 통해 ‘동물생태 및 윤리’에 관한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했을 뿐 실제현실에 적용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거나 상호작용한 경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윤리의식을 인간 혹은 주변의 상황으로 확장시켜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상황, 또는 그에 대한 윤리의식에 이를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VR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되 학생들이 주제에 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많은 시간,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게 하여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나 이해로 머무르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습득한 윤리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진주교육대학교

I

전형 개요

- **전형명** :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특별전형(지역인재,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탈북) 학생,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 **전형 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서류	심층면접
단계별	1단계	100% (2.5배수 선발)	
	2단계	70%	30% (개별면접, 집단면접)

	개별면접	집단면접
시간	10분 내외	50분 내외
방법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직 적성·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양, 인성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질문 · 학교생활기록부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예비교사로서의 인성, 자질에 관련된 질문 ·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잠재력에 대한 질문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의 발표 및 토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태도와 자질 등 교직 적성·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1) 면접 형식 : 발표 및 토의(조별 6인 내외로 구성) 2) 면접 진행 순서 · 주어진 의제에 대한 발표 준비 · 조별로 편성하여 사회자(면접위원)의 진행 아래 발표 및 토의 실시 · 토의를 마친 후 면접위원이 개별적으로 수험생에게 질의응답 가능
평가 항목	· 긍정적 자아개념 : 자신에 대한 애정과 신뢰, 긍정적 태도 등에 대한 평가 · 교사로서의 자질 : 예비 교사로서의 소명감, 지도력, 공동체의식 등에 대한 평가 · 전문성과 발전가능성 : 교사로서의 전문성,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	· 발표력 :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로써 나타내어 알릴 수 있는 능력 · 표현력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능력 · 수용력 :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 · 사회성 : 토의를 잘 이끌어 가고 구성원과의 공동체의식을 발휘하는 능력



※ 집단면접 진행순서(진주교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2단계 심층면접 안내서 참조)

집단면접 속고	15분	· 출제문제 확인 후 발표지(A3, 3색 사인펜 활용) 작성 (발표지 교체 불가, 발표지 작성 이전에 연습지(A4) 활용할 것)
↓		
입실		· 자신이 작성한 발표지를 가지고 집단면접실로 이동 후 입실 (발표지를 타 수험생이 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어 이동)
↓		
개별발표	개인당 3분	· 자신이 작성한 발표지를 화이트보드에 부착한 후 발표 · 타 지원자의 발표를 들으며 발표 내용 및 의견을 요약지에 작성하여 토의시간 에 활용
↓		
집단토의		· 수험생 6명의 집단토의(토론X) · 자신의 발표 내용 및 다른 지원자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한 점, 자신과 다른 의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질문 가능 · 상대방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을 듣고 요약지에 기록하며 토의에 참여
↓		
공통질문		· 면접관의 공통질문
↓		
퇴실		· 가방(및 소지품)을 챙겨 설문조사 장소로 이동

II

2019학년도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

1.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집단면접고사 문제지(2018년 11월 3일(토) 오전반)

1)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생활지도를 해왔다. 4개의 지방 자치 단체(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는 이를 헌법이 정한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반박하였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생 인권 조례’(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2)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네스코) 등의 기본 정신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교사의 수업과 지도, 자율적인 학교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 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인권 주장 방식에 연유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여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리 주장은 방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8년 10월 2일 개정) 제9조 ⑦항에는 학교장은“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등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중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학교규칙으로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4개 지자체 교육청 모두 명시하고 있다.

※ 이상의 지문과 관련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시문 2)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2. 제시문 4)에서 두발은 자유,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1-1. 대학측 출제 의도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문제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서로 모순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개성을 모두 존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 실태는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된 교육 공동체 내의 첨예한 찬반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예비 교사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가치적 측면(1번), 방법적 측면(2번)에 대한 물음을 통해 지원자의 교육적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문과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지원자의 생각을 듣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1-2. 문제 해설 및 발표, 질문 예시

제시문 1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과 그로 인한 교육 공동체 내 의견 대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2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소개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또 다른 권리 침해로 가져온다는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고 본다.

제시문 3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소개한다. 학생인권조례로 강조되는 자신만의 권리는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제시문 4는 두발과 복장에 대한 제한을 둘러싼 학생인권조례 실천 방법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다.

지원자는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집단토의 단계에서 상대의 의견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발표 예시	질문 예시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제시문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은 학생이기 이전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제정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의 기본권이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의견은 본질적인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반대) 제시문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권조례의 출발점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낸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도외시키고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 찬성)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논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요? · 찬성)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찬성) 제기하신 문제들은 단순히 해당 법규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학교의 변화와 그로 인한 구성원들의 혼란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 반대) 교육이 권리라는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의

	발표 예시	질문 예시
문제 1	<p>생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편파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고 체벌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로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와 관련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이 현상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과거의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반대) 학생은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대) 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암묵적으로 어떠한 인식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법규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상황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 학생인권조례 하에서 학교 규칙은 무기력합니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이 조례의 내용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호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과 복장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두발과 복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장은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바꿀 수 있으나 두발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발과 복장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생을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반대)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학생에게 가장 의미있는 공간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찾는다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집단면접고사 문제지(2018년 11월 3일(토) 오후반)

1)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절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1995년 1,172만명이었던 수준에서 2015년 875만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300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데 2010년 328만여명이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엔 267만명으로 줄었다. 대학 역시 고교 졸업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도는 역전 상황이 벌어졌다(교육부, 2017, 교육통계서비스). 전체 인구구조에 있어서 절벽이 있다는 사실은 전통적 의미에서 학교교육의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 등의 개편과 변화가 요구된다.

2) 교육부는 2015년 말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다.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범위는 매우 넓다. 60명 이하 면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국 2747개 초·중·고교에 달한다. 전국 학교 1만1809개 초·중·고교의 23.3%에 해당하는 수치로, 5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 셈이다.(경향신문, 2016. 02. 10.)

3)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후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는 물론 또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기술 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배가된 사례가 있다.

4) 일부 시민단체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의 정치·경제적 논리를 반박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과 특성화된 교육에 부합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의 작은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이룬 후 조용하고 적막했던 시골이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학교로 거듭난 곳도 있다.

※ 이상의 지문과 관련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학령기 인구감소가 미래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하시오.
2. 제시문 3)과 4)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정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시오.

1-1. 대학측 출제 의도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교 교육 변화는 예비교사들이 반드시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내용이다.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령기 인구감소가 사회에 미칠 영향(1번), 학교 통폐합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2번)에 대한 물음을 통해 지원자의 교육적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문과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지원자의 생각을 듣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1-2. 문제 해설 및 발표, 질문 예시

제시문 1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감소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2018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도는 역전 상황이 벌어지므로 학교정책과 교육과정 등의 개편과 변화가 요구됨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권고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전체 학교 5곳 중 1곳에 해당됨을 소개한다.

제시문 3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또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기술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

제시문 4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적 통폐합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근거로 내세운다.

	발표 예시	질문 예시
문제 1	· 제시문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학령기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8년 이후 대입 정원 수보다 고교 졸업자 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학교 교육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학교정책과 교육과정 등의 개편과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정책 측면에서는 교원 수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며,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기존의 상대평가 위주의 선발 교육에서 벗어나 절대평가 위주의 선택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어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대입정원 수가 고교 졸업자 수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기존의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빚어질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학령기 인구 절벽이 나타나는 미래의 교실은 현재의 교실과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문제 2	· 제시문2)에 나타난 것처럼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 정부와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위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	· 찬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율적 통폐합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발표 예시	질문 예시
문제 2	<p>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 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p> <p>· 찬성) 제시문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교육부 예산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면 통폐합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폭넓고 다양한 또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통폐합은 당위적이며 이때 파생될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반대) 제시문 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정치·경제적 논리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학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결국 해당 지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고령화된 사회일수록 교육은 지역사회의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내의 자율적 통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찬성) 지역사회의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보다 우선한다고 보시나요? 학생들은 성장한 이후에 어떤 지역에서 살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교육이 이를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p> <p>· 찬성) 소규모 학교가 갖는 어려움을 정부가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p> <p>· 반대) 고령화된 미래 사회에서 개개인의 역량은 과거보다 강화된 것이어야 하며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p> <p>· 반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부담을 지려고 할까요?</p>

진주교육대학교 모의면접 문항



1) 자사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준말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 전된 학교 모델이다. 교육기관은 보통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국가가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늘림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한 자율성으로 자사고가 본래 취지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라는 입시 결과에 있어 월등한 성과를 내는 입시 전문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2) 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학생선발권과 관련된 것이다. 학생 선발권이란 자사고에서 자체적인 시험이나 내신 성적을 통해 학생을 뽑는 권한을 말한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사고에서는 선발권을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사고 선발권이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평준화 교육에 해가 되고 학생들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자사고 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를 가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소득 수준으로 인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 또한 자사고는 구성원의 특성상 다양성을 배우고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아이들만 모인 곳에서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옳고 당연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학생들의 양성소가 되기 십상이다. 자신들과 다른 타인을 만나는 경험이 없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키워진다면 이는 두고볼 수 없는 문제이다.

4) 자사고 폐지는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해서 불평등하다면 일반고가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반고의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등은 하향 평준화일 수밖에 없다.



※ 이상의 질문과 관련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자사고 설립 취지와 관련지어 학생 우선 선발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2. 제시문 3)과 4)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자사고 폐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시오.

〈예시 답변〉

1. 자사고는 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그에 따른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선발권은 자사고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시문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자사고는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는 형태의 우선 선발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번 문항

· 찬성

제시문3)에 따르면 자사고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통로로 이용되어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또 자사고에서 교육을 받아 상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보다는 소수의 선민의식을 가질 뿐입니다. 학교 교육은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 양성에 목표가 있습니다. 자사고의 존재와 성과가 학교 교육의 목표에 반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

제시문4)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는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고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족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고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계고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교육 서비스를 자사고가 제공한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수요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큰 요인으로 학벌을 보는 이상 자사고 폐지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간을 도와주신 분



기 획

전영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
변용권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강은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강상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집 필

부산광역시교육청 논술면접지원단(인문팀)



검 토

부산광역시교육청 논술면접지원단(인문팀)

2020 대입 수시 대비 제시문 면접 지도 자료(인문)

발행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발행일 : 2019. 10.
